

고전 읽기와 교양교육

정인모*

목 차	
I. 서 론	IV. 고전 읽기 방안
II. 대학 혹은 교양교육의 본질	V. 고전 읽기 수업의 실제
III. 왜 고전인가?	VI. 결 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고전읽기와 교양교육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우선 교양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이는 독일 사상이 빌헬름 훔볼트가 내세운 대학의 기본 개념인 ‘자유’와 ‘고독’이 교양교육 이념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면서 출발한다. 이어 고전의 개념과 정전의 역사적 과정을 기술하고, 특히 포스트모던 시대에서의 정전의 의미와 선택 기준, 또 그 가치를 살펴본다. 나아가 어떤 고전을 읽힐 것인가, 또 고전을 어떻게 읽힐 것인가에 대해 분석했다. 전자의 문제는 결국 흥미 위주의 작품을 읽힐 것인가, 아니면 문학성이 있는 고급문학 혹은 소위 ‘좋은 책’을 읽힐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의 문제는 비판적 읽기가 중요한데, 여기서 비판적 읽기란 글을 비판적으로 그냥 읽기보다는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방향으로 글을 읽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논문은 고전읽기 수업의 실질적인 예를 P 대학의 ‘고전읽기와 토론’ 과목을 들어 간략히 기술하였다. 요컨대 교양교육의 핵심이랄 수 있는 고전 읽기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그것의 수업 방법이나 전략 등은 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최상의 것을 취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교양, 고전, 정전, 비판적 글 읽기, 수용미학

* 부산대 교수, jim@pusan.ac.kr

이 세상은 하나의 책과 같다.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책 한 페이지만 읽을 뿐이다.

-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I. 서 론

우리나라 대학이 지성의 전당이라는 표현이 아직 유효할까? 혹자는 대학이 그 효력을 상실한지 오래된다고 말할 것이다. 대학이 고상한 상아탑의 표상이었던 적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우리의 대학교육은 실용주의 혹은 업적주의에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는 대학 입학 때부터 자기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기보다, 향후 진로나 현실적으로 영향력 있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실용주의 학문이 대세를 이루고 고도의 정보와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학교육 혹은 평생 교양과목이라 일컬어지는 문, 사, 철이 천대받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교양교육이 홀대받은 지도 오래다.

그래서 독서도 자기계발서나 커리어 관리, 여행 등에 관한 책에 그나마 시간을 할애할 뿐, 삶을 반추하고 철학적 성찰을 요구하는 책 읽기에 대한 관심은 빈약하다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일각에서는 인문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대학평가에서 억지로라도 교양에 대한 비중을 높이려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한 가닥의 희망을 갖게 한다. 제 아무리 현실의 트렌드가 실용주의 방향으로 간다 해도 대학은 대학의 본질을 스스로 지켜야 하고 명실상부한 대학교육의 혁신은 지속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증대하여,

기업이나 은행 등 입사시험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평가하고 있는 추세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의 본질 회복, 교양교육의 실행 방안으로 고전 읽기가 강조되고 있다. 다행히 현재 고전 읽기를 필수 교과목으로 선정 운영하는 대학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왜 고전 읽기가 대학의 본질 회복과 관계가 있을까? 하필 고전 읽기가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초중등뿐 아니라 대학교육에서 고전 독서가 왜 강조될까? 일반적으로 고전에는 인류가 축적해온 지혜와 슬기가 담겨있기 때문일까? 왜 고전은 인류의 축적된 보고(寶庫)라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실용적 사고가 대세인 현대에 와서도 고전교육은 강제성을 띠더라도 강조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의 고전교육 형태는 바람직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여기서는 고전의 개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고전 읽기가 교양교육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제도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대학에 정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교육 내용이 어떠한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시기에 이러한 시도는 대학의 본질뿐 아니라 교양교육의 이정표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 대학 혹은 교양교육의 본질

빌헬름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는 대학 혹은 학문의 본질을 ‘고독’(Einsamkeit)과 ‘자유’(Freiheit)로 규정하였다.¹⁾

1) Jochen Vogt, *Einladung zur Literaturwissenschaft* (2. Aufl.), UTB, 2001, p. 20.

대학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통해,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순수 학문에 대한 통찰이 유보되어 있다. 진정한 이해 속의 이러한 자기 행위를 위해 자유는 필수적이고, 고독은 도움을 줄만 하다. 이 두 가지 점으로부터 대학의 전적 외부 편제가 흘러나온다.

Der Universität ist vorbehalten, was nur der Mensch durch und in sich selbst finden kann, die Einsicht in die reine Wissenschaft. Zu diesem Selbstaktus im eigentlichen Verstande ist notwendig Freiheit und hülfreich Einsamkeit, und aus diesen beiden Punkten fließt zugleich die ganze äußere Organisation der Universitäten.²⁾

훔볼트는 대학 혹은 교양의 본질로 ‘고독’과 ‘자유’를 말하고 있다. 훔볼트는 여기서 학습자들의 지적 자율성의 핵심 개념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기서 ‘고독’은 오늘날 ‘고독’의 개념과는 다르게 사용된다. 훔볼트가 이 단어를 정의 내리던 19세기까지만 해도 고독이라는 단어는 긍정과 부정 둘 다의 양가 가치를 지니고 있었으며, 훔볼트는 여기에서 ‘고독’을 긍정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고독’의 긍정적 의미란 ‘내버려진 상태’(Verlassenheit)가 아닌, ‘통일’(Einheit), ‘하나됨’(Einsamsein)의 의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독’을 자기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난 정신적 삶의 은유로 보아야 하며,³⁾ 이는 신의 뜻과의 합의를 말한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운다는 의미, 신이 그 빈자리를 채운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렇듯 초기에는 ‘통일성’(Einigkeit)을 의미했던 ‘고독’이 현대에 와서는 ‘버려짐’으로 바뀐 셈이다.

2) Jochen Vogt, 앞의 책, p. 20.

3) 훔볼트가 대학의 본질을 규명한 낭만주의 시기만 해도 ‘고독’이란 단어는 ‘하나임’(Einsheit) 혹은 ‘하나로 존재함’(Einssein)이라는 긍정적 의미도 들어간 양가 가치의 개념을 띠었다. 하지만 이 단어가 니체, 헤겔, 포이어바흐 등을 거치면서 사회와의 관계에서 오는 ‘소외’, ‘남겨짐’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20세기에 오면, 특히 실존주의 철학이 팽배했던 시기에 오면 ‘혼자 있음’(Alleinsein), ‘버려짐’(Verlassensein)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띠게 된다. Friederike Gösweiner, *Einsamkeit in der jungen deutschsprachigen Literatur der Gegenwart*, StudienVerlag, 2010, p. 35 참조.

한편 ‘자유’는 말 그대로 학문에 있어 어떠한 외부적 요인도 간섭이나 압박을 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학문 선택의 자유뿐 아니라, 학문 연구를 함에 있어 어떠한 구속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것 중 자유로운 사유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자유’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을 동원케 하기 때문에 학문의 기본적 자세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로운 사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구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오늘날 대학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요구되는 바, 대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세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전 읽기를 통한 교양교육이 그 한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고전 교육은 대학의 본질과 직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고전 읽기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켜 준다고 말할 수 있는가?

III. 왜 고전인가?

1. 고전의 개념

고전(Klassik)이란 라틴어로 classis인데, 원래 어떤 특정한 재산을 가진 시민의 한 그룹을 의미했다. 이후 이 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우선, 어떤 클래스(class)라 함은 학교 같은 곳에서 동일한 요구를 성취하기 위한 개개의 그룹을 의미한다. 그리고 문학에서 클래식이란 모범이 될 만하고 가장 대표할 만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모범적이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즉 시간 초월의 가치를 지닌 작품을 고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전 작품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또 어느 시대에

서나 해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해석이 열려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고전 작품은 세계명작, 혹은 정전(正典) 작품, 즉 카논(Kanon)이라 할 수 있다. 요즘 많이 언급되는 정전은 필독서 혹은 권장도서를 말할 때 사용된다.⁴⁾

정전이란 용어는 원래 성서에 대한 평가 기준의 논의에서 시작된 용어로, 규준(Richtschnur), 척도(Maßstab), 법칙(Vorschrift)을 뜻했다.⁵⁾ 문학에서는 어떤 준거가 되는 텍스트 혹은 초시대적 고전으로 간주되는 예술 작품을 뜻하는데, 빌페르트(G. v. Wilpert)에 따르면 “문학에서 일반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학자에 의해 전범적 작가나 작품으로 선별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문학 수업이나 독서물, 명작선을 선정하는데 기초가 된다.”⁶⁾

정전에 대한 논의는 1990년 이후 재발화되었다. 물론 많은 영역에 변혁을 가져오게 한 68학생운동 이후 70년대부터 독일 중고등학교에서 교육학자들에 의해 정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대학에서는 80년대 아스만 부부(Aleida & Jan Assmann)의 ‘정전과 검열’(Kanon und Zensur)이라는 심포지엄을 계기로 정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90년대 와서 미국을 중심으로 이것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게 되었다.

특히 68시기에는 기존 권위를 거부하는 경향이 정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데, 정전은 역사적으로 인정받아 온 작품들, 이를테면 독일의 경우 괴테(J. v.

4) 이 개념들을 보다 면밀히 정의하자면, 고전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혀 모범이 될 만하다고 인정된 작품을 말하고, 정전은 국가권력이나 그에 준하는 집단에 의해 그 권위적 가치가 보존 유지되고 있는 작품을 말한다. 따라서 고전화란 어떤 텍스트가 일군의 지식인, 학자, 대중들에 의해 널리 읽힐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과정을 말한다면, 정전화는 어떤 텍스트가 국가권력이나 그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에 의해 교과과정으로 제도화되어 모범적 텍스트로 공인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고전과 정전을 유사개념으로 보고 병행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5) Elisabeth K. Pfaefgen, *Einführung in die Literaturdidaktik*, J. B. Metzler, 1999, p. 54.

6) Gero von Wilpert, *Sachwörterbuch der Literatur*(der 8. Aufl.), Alfred Kröner Verlag, 2001, p. 396.

Goethe), 실러(F. Schiller) 등 고전작가들의 작품이 중심적인 필독서가 되었다면, 68운동 시기에 오면 이에 대한 변화와 수정(Revision)이 요구되고, 소위 ‘수정 카논’, 혹은 ‘정전 수정’(Kanonrevision)⁷⁾이 거론되기에 이른다.

정전 선정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공존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정전에 대한 무용론과 필요성의 긴장관계와 같다.

카논을 지시나 강행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대포’(cannon)가 될 수 있다고 소잉카는 말한다.⁸⁾ 다시 말해 정전이 지나치게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정전이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독재 등) 및 종교적 편향에 간혀있게 되면 그것은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개인주의 시대에, 또 다원화되고 개방된 현대사회에서 정전에 의한 규범적 틀과 군림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고전의 범위도 상당히 넓어졌고 고급문학과 통속문학의 경계도 좁어지는 상황에서 정전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된다.

그렇다면 정전이 정말 필요 없는 것은 아닌가? 정전이 오히려 자유로운 독서교육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부정적 견해도 불구하고, 정전 선정은 독서교육에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특히 책 읽기 가이드라인이나 길라잡이가 필요하다면 정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독일 비평가 라이히-라니츠키(M. Reich-Ranicki)도 “과연 우리는 정전이 필요한가?”(Brauchen wir einen Kanon?)라는 글에서, 만약 정전이 없다면 ‘자의, 방종, 혼란, 무대책’(Willkür, Beliebigkeit, Chaos, Ratlosigkeit)을 초래한다고 말한다.⁹⁾ 다만 정전 선정은 어떤 강제성을 띠는 것보다 책

7) 정인모, 「정전화와 탈정전화」, 『독어교육』 43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08, p. 279.

8) 월레 소잉카(장경렬 역), 「문학의 서쪽을 향한 정전, 동쪽을 향한 정전」, in: 『경계를 넘어 글쓰기』, 민음사, 2003, p. 19.

9) Marcel Reich-Ranicki, *Der Kanon. 20 Romane und ihre Autoren*, Insel Verlag, 2002, p. 13.

을 읽히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권면의 역할을 해야 하고, 이러한 정전 제정이 완결된 절대 가치의 독점이 아니라 언제든지 시대에 따라 변화 가능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틸레(Thiele)도 고전 작품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고전작가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뜨거운 심장을 얻기 위한 초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¹⁰⁾ 이런 의미에서 강압적 정전 제시보다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정전 추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니츠키가 ‘우리의 정전’(bei unserem Kanon), ‘우리의 정전 목록’(bei unserem Kanon-Bibliothek)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 정전’(Der Kanon)이 아니라 ‘하나의 정전’(ein Kanon)을 말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¹¹⁾

결국 정전 설정은 문학 수업이나 독서물, 명작선을 제시하는 데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정전이 국가나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이용되기도 했고,¹²⁾ 때로는 엘리트적이며 독선적이고 강압적인 것으로 비판되고 폄하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정전의 존재와 논의는, 빌페르트의 말대로, 문학 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역사와 기억이 실종되는 혼란을 막아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¹³⁾

2. 고전의 가치와 교양

그렇다면 고전은 어떤 유익과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가? 여기서는 고전의

10) Johannes Thiele, *Die großen deutschen Dichter und Schriftsteller*, marix Verlag, 2006, p. 12.

11) Marcel Reich-Ranicki, “Brauchen wir einen neuen Kanon?” <http://www.derkanon.de/essays>(검색일 : 2020.05.25.)

12)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치 때의 금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또 금서에 관한 것으로, Nicholas J. Karolides, Margaret Bald & Dawn B. Sova, *100 Banned Books*, Facts On File Inc., p. 1999를 참고할 수 있다.

13) Gero von Wilpert, *Sachwörterbuch der Literatur*(der 8. Aufl.), Alfred Kröner Verlag, 2001, p. 396.

가치와 더불어 고전과 교양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우선, 고전은 선인들의 지혜와 해안을 얻을 수 있는, 축적된 보고(寶庫)라 할 수 있다. 아무리 끄집어내어도 마르지 않는 원천이 고전작품에 있으며, 앞서 말한 대로 이것의 읽기와 해석이 시대와 개인에 따라 새롭게 와 닿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시대에 필요한 비판적, 통합적 인간상을 갖게 해 줄 수 있다.

그 다음, 고전 읽기를 통해 상상력을 가질 수 있고, 정서적 심미적 쾌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한 지식 획득의 의미보다 작품을 읽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런 독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사유를 강화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전 읽기를 통해 다양한 사고와 삶의 형태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 확보와 통합적 시각 배양을 통해 전인적 존재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고전 읽기를 통해 교양의 토대를 갖추 수 있고, 더 나아가 대학의 본질을 견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 인재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리고 고전 읽기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여러 가지 요인으로(특히 미디어의 변화) 고전을 읽고 이해하기란 쉽지 않으며, 독서량 또한 부족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해서는 다양한 글 읽기, 특히 고전 읽기를 통해 서로 간의 대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작품을 통한 독자의 저자와의 대화,¹⁴⁾ 그리고 실제 수업에서 고전을 읽고 서로 토론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재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전 읽기를 통한 토론 방식의 의사소통은 독자(학생)들의 보다 다채로운 의식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전은 다원화되고 세계화된 시대에 타문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고전만큼

14) 이를 수용미학에서는 ‘문학적 소통’(die literarische Kommunikation)이라고 한다.

그 문화와 정신을 알려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전 읽기는 시대와 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담은 모범적 지식으로써 학생들의 인격 및 통합적 사고를 배양하고 사유의 힘을 기르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종합적 시각을 학생들에게 갖추게 하여 편향된 세계관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인간과 세상에 대한 다층적 이해와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은 고전 읽기의 필요성은 교양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고전 읽기의 유용한 가치가 교양교육 이념과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P 대학의 교양교육의 기본 방향은, 기초사유 강화, 통합적 시각 배양, 인성교육, 사회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함양, 심화 학습을 위한 기초지식 제공으로 설정되어 있는데¹⁵⁾-다른 학교의 교양교육의 이념도 이와 비슷하리라 본다-이는 앞에서 언급한 고전 읽기의 중요성과 그 의미가 일치한다. 이런 의미에서 고전 읽기는 교양교육의 가장 근본이 되는 실행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V. 고전 읽기 방안

1. 어떤 고전을 읽힐 것인가?

어떤 고전을 읽힐 것인가의 문제는 정전 선정 문제와 관계있다.

정전 선정의 대전제는 우선 선정의 기준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카는 선정은 독자의 연령에 따라, 학교 및 학년에 따라 달라져야 하고, 읽는 목적,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위 ‘문학의 사회화’(Literarische Sozialisation)¹⁶⁾에 맞추어 유아기의 그림책으로부터 노

15) 정인모, 「바람직한 교양교육 기관의 요건과 유형」, 『교양교육연구』 Vol. 10, No. 3, 한국교양교육학회, 2016, p. 217.

년을 위한 큰 활자체의 고전 작품까지 여러 단계로 나뉘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각 연령에 맞는 정전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라니츠키는 문학 장르에 따라 정전이 달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학 장르는 일반적으로 시, 소설, 드라마로 나뉘는데-괴테는 이것을 ‘문학의 자연스런 형식’(Naturformen)이라 하였다¹⁷⁾-, 라니츠키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장편소설, 단편소설, 시, 드라마, 수필의 5가지 장르의 정전을 각각 선정하였다.

정전 선정은 또한 정전화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성과 맥락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정전 선정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자.

우선 정전은 인기 있는(유행하는) 작품인가, 아니면 문학성이 있는 작품인가를 두고 고민할 수가 있다. 당연히 전통적인 개념에 따라 문학성이 있는 작품이 정전 선정의 기준이 될 터이지만, 앞서 말한 대로 고급문학과 통속문학의 경계가 애매해진 현대에 와서, 또 흥미에 따른 선호도가 높아져가는 경향에 따라 이런 통속성을 어느 범위까지 수용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흥미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교육에 중점을 둘 것인지, 즉 이 두 개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이것은 크게 볼 때 문학교수법의 영역에 속하는데, 문학교육에 대한 최초의 작업은 히케(Robert Hiecke), 바커나겔(Philipp Wackernagel), 레만(Rudolf Lehmann)에 의해 행해졌다. 히케는 텍스트의 ‘이해’와 ‘해석 학습’에 중점을 두었고, 바커나겔은 감성을 강조하는 문학수업을 지향했다. 이 두 사람의 지성-감성 논쟁은 문학교수법의 태동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문학 교수법의 논쟁이 되어왔고, 레만은 이 두 사람의 입장을 조율, 중재하려

16) Hartmund Eggert & Christine Garbe, *Literarische Sozialisation* (2. Aufl.), J. B. Metzler, 2003 참조.

17) Sabina Becker · Christine Hummel · Gabriele Sander, *Literaturwissenschaft*, Reclam, 2018, p. 62.

고 했다.¹⁸⁾ 이러한 것이 현대에 오면-특히 1970년대의 수용미학의 영향이 컸는데-‘행위 및 생산지향 문학 교수법’¹⁹⁾으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오면 수요자 중심의 흥미 위주의 선호도가 높아져서 정전 선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조앤 K 롤링의 『해리포터』는 수십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3억 권이 넘는 전례 없는 판매수치를 기록했는데, 이것이 과연 문학성에 있어 카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계속적인 논란이 되어왔다.²⁰⁾ 결국 이 작품의 경우, 출판사 등의 거대 기업의 역할에 의한 흥행결과라는 부정적 입장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아동을 위한 카논이었던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나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정전으로 손색없이 자리 잡을 수 있는가에는 많은 이론의 여지가 남는다.

그리고 정전은 정전을 형성하는 기구나 제도, 시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에서 어느 정도 독립하여 정전을 제정하는가가 중요하다. 정전 제정은 앞서 살펴본 대로 국가권력 중심적이라는 속성을 안고 있으며, 현대에 와서는 시장성의 위력도 무시할 수가 없다. 정전을 만드는 기구로는 국가 외에 학교, 출판사, 메스미디어, 문화산업 등이 있으며, 출판시장, 출판사 규모, 유통 홍보 여건, 저자의 인지도, 베스트셀러 순위, 광고, 사재기 자본, 문학상 수상, 저자의 정치적 성향 및 권력 유착관계 등이 정전 제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다음 정전은 항상 시대가 지남에 따라 수량적 한계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시대가 지나면서 현대 작품을 수

18) Elisabeth K. Paefgen, *Einführung in die Literaturdidaktik*, J. B. Metzler, 1999, p. 6.

19) ‘행위 및 생산지향 문학수업’은 수업에서의 학생 독자성을 존중하여 그들에게 동기 부여를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권오현, 「전후 독일의 ‘행위지향’ 문학 교육」, in: 조창섭(외), 『독일현대문학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p. 38, p. 52 참조.

20) 손향숙, 「해리포터는 아동 문학의 고전으로 남을 것인가」, 『창작과 비평』 2005년 겨울호, 창비, 2005, p. 318.

용해야 하는 경우 이전 작품은 탈락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1852년 가장 먼저 카논 목록을 제시한 라우머(Rudolf von Raumer)가 15개의 정전 작품을 제시했을 때만 해도 주로 괴테와 실러에 집중되었고, 에센(Erika Essen)은 1956년에 13개의 정전 중 괴테, 실러 외에 토마스 만이나 브레히트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을 알 수 있다.²¹⁾ 그리고 2000년 북달(Klaus-Michael Bogdal)과 캄러(Clemens Kammler)가 선정한 정전과 라니츠키가 2002년 선정한 정전에는 프리쉬, 뉘른 등 많은 작가들에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²⁾ 이처럼 정전은 생성과 소멸의 운명 속에 놓이게 된다.

2. 어떻게 고전을 읽힐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고전을 어떻게 읽힐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70년대에 본격적으로 논의된, 수용미학(Rezeptionsästhetik)에서는 기존의 ‘작품’(Werk) 개념이 달라지게 된다. 이전의 ‘작품’이 뮤즈 신이 작가의 손을 빌어 탄생시킨 것을 의미했다면, 수용미학 이후로는 이것이 텍스트(Text)의 개념으로 바뀐다. 이 텍스트라는 개념은 각 개인, 혹은 시대에 따라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열린 개념이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작품이라는 절대적 가치는 텍스트라는 상대적 가치로 옮겨간다. 그래서 고전의 가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 정치적 환경 속에서 시대적으로 재해석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작가가 의도한 작품의 의미나 시간적, 공간적 배경과의 관계에서 작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것을 오늘날의 시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다. 고전이란 오

21) 정인모, 「카논과 독서교육」, 『독어교육』 36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06, pp. 50-51 참조.

22) 정인모, 앞의 책, pp. 52-53.

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작품이란 사전적 의미를 통해서도 추론될 수 있듯이 고전은 재해석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소위 문학적 지식만을 획득하는 것이 강조되면 곤란하고, 이 작품을 현재 우리의 삶, 혹은 사회적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전은 과거에서 현재를 밝히고 미래를 예견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적 가치를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찾게 하는 것이 고전 읽기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전에 합의되어야 할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고전을 읽힐 것인가, 즉 어떤 방법으로 고전으로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고전 읽기의 목적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교과목으로 한정하여 설명하면, 보통 교수자들이 한 학기에 선정하는 고전이 대략 4권 정도라고 할 때, 무엇을, 왜 고전으로 선정했는지에 대한 상호이해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고전읽기의 목표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학생과 교수 간 상호이해는 교수자 간 상호이해로 나아가야 한다.

고전 선정에 대한 상호합의가 끝났다면 어떻게 고전을 읽힐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으로 나아가야 한다. 보통 고전강의에서 사용되는 교수법은 일방향적 전달방식²³⁾을 선택한다. 물론 이 방식은 어려운 고전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킨다는 면에서는 효용성이 있으나 고전의 원래 가치인, 고전이 시대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던진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고전이 최근에 주목받는 것도 오늘날의 복잡한 시대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더 상호소통적 교수방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높아진 고전에 대한 열기를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교수방식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곧 시대마다 다른 창의적 사고가 요구된다고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예를 들어 1980년대나 1990년대의 기업

23) 이 교수법은 고전교육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방법이나 이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 필자는 일방향적 전달방식 => 통합적 전달을 교수자의 몫으로 보고, 다음 절차는 반드시 토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앞서서도 말했듯이 고전교육이 갖는 폐쇄성과 경직성이 창의적 사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나 공무원 조직에서 요구되는 인재상을 뽑기 위한 시험과 오늘날 기업이나 공무원 조직, 특히 고위 공무원 시험에서 요구는 인재상과 시험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고전 교육은 정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비판적 사고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고전 교육은 반드시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창의성은 생각 펼치기의 발산적 사고와 생각 모으기의 수렴적 사고²⁴⁾가 있다. 발산적 사고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탐색하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해결책을 동원해보는 과정을 뜻한다. 반면 수렴적 사고는 학교 수업이나 시험을 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사고력으로 대안 검토, 우선순위 검토, 선택 등을 말한다. 달리 말하면 수렴적 사고에는 정교성, 논리성, 비판성, 분석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반면 발산적 사고에는 유창성, 융통성, 민감성, 독창성, 유추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만약 고전을 일방향적 전달방식의 강의방식을 선택하면 수렴적 사고에는 도움이 되나 발산적 사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²⁵⁾ 고전

24) 비판적 읽기 모델을 위해 김영정 교수의 비판적 사고 모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김광수 교수와 함께 비판적 사고에 관한 대표적 학자이며, 특히 김영정 교수는 비판적 사고 연구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최훈, 「김영정 교수의 비판적 사고론」, 『논리연구』 Vol. 13, No. 2, 한국논리학회, 2010 참조).

← 수리성방향	비판적 사고					→ 예술성방향
기호적 사고	분석적 사고	추론적 사고	종합적 사고	대안적 사고	발산적 사고	상징적 사고
		연역, 귀납	변증적사고		유창/융통/ 독창/정교성	
수렴적 창의성					발산적 창의성	
수렴성(비판성)					발산성(생산성)	

25) 일방향적 전달 방식의 강의라 할 지라도 한 고전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다른 영역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비판되는지에 대한 통섭적 접근은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통섭적 인간에게 더욱 접근될 수 있는 교수법이라 생각한다. 가령 생물학에서 유전자가 유전된다면 인문학에서는 유전되는 개념은 없을까? 또는 인문학에서 데카르트적 존재와 인식에 이원론적 인식이 현대의 자연과학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읽기의 목적이 단순한 고전에 대한 지식의 탐구가 아니라 개인적이든, 시대적이든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전제한 것이라면 더욱더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것이나 가장 좋은 방법은 토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고전읽기와 토론에서 토론의 의제 설정 등은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 고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생산성 있는 토론이 가능한데 자칫 고전과 무관한 토론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학기 고전분량, 토론 방법, 시간 배분 등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반성과 토론으로 더 나은 해결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서 교수방법과 성과의 공유가 더욱 중요하다. 가령 A학교의 B라는 학생이 어떤 고전의 개념으로 학생 개인의 문제이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내었다면, 그것에 대해 다른 학생들의 반응이 어떠하며, 교수자는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대한 풍부한 사례의 공유가 더욱 요구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문제는 개인마다 다양하나, 다양한 문제를 자기 문제로 재해석하면서 타인의 해결책을 참고하는 것 또한 고전교육이라 보기 때문이다.

나아가 제언을 하나 하자면 정전에 대한 재 항목화 작업과 주체의 다양성 문제이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전의 항목화는 서양 고전, 동양 고전 등이나 이러한 항목화가 오늘날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정전에 대한 기준을 교과부, 대학, 출판사에서 나아가 또 다른 주체들이 담론화한다면 오늘날의 문제와 해결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종합하면, 고전은 과거의 흔적을 우리의 눈앞으로 다시 끌어오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고전은 우리와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와의 대결 속에 고전은 참된 빛을 발한다. 달리 말하면 고전은 지금, 여기의 문제

등이다.

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고전은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의 역할도 한다. 그러므로 고전은 자유로운 해석적 실천을 전제하고 그렇게 해야만 고전의 가치가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실천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토론이 될 것이나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을 것이다.

V. 고전 읽기 수업의 실제

P 대학에서는 2013년부터 ‘고전읽기와 토론’ 과목을 교양 필수 과목으로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개설 동기는 다양한 지식과 선진들의 혜안이 담긴 텍스트이자 지식과 사고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고전을 읽게 하는 것이, 기초사유를 강화하고 통합적 시각을 배양하는 등의 교양교육 목표와 상응하기 때문이었다. 당초 계획은 기존 교양 필수 과목이었던 ‘열린 생각과 말하기’,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과목들을 폐지하고, ‘고전읽기와 토론’을 그것의 대체 과목으로 삼는 것이었다. 즉 고전을 읽게 하고(읽기), 그것을 토대로 토론(말하기)하는 것을 구상했으나, 기존의 ‘말하기’, ‘글쓰기’ 과목은 여러 가지 이유로 폐지하지 못하고, ‘고전읽기와 토론’이란 과목만을 추가로 개설하게 되었다.

이 과목이 개설된 이유는, 앞에서 말한 바대로, 단순히 ‘고전 읽기’의 중요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의사소통 교육이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도일 뿐,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지식인으로서의 대학생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바, ‘고전 읽기’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 컸기 때문이다.

이 과목이 개설된 또 다른 이유는, 학생들의 고전 독서량이 부족한 면이 있고, 기존의 말하기, 글쓰기 교육이 ‘고전 읽기’와는 동떨어진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과목은 고전을 읽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에 임하

게 하여, 사고력과 표현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표였다. 다시 말해 교양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게 함으로써 현재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를 균형적으로 보는 감각을 일깨운다는 것이다.

P 대학에서 개설된 ‘고전 읽기와 토론’ 과목은 2013년 1학기에 개설된 필수 과목으로서 2학점이며 1주당 2시간(100분)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학기당 50~60개의 분반이 개설되며, 1분반은 30명 내외의 기준이다. 주 교재는 처음에는 『고전의 힘』 내용 안에서 영역이 다른 3권을 의무적으로 읽히도록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소 바뀌어 영역에 관계없이 선택하고, 고전 읽기 교재도 『고전의 힘』 외에, PNU 고전 50선, 그 외 유명 고전에서 자유롭게 택하도록 하였다. 가르치는 교수자는 처음에는 다양한 영역의 우수한 강의로 공개 선발하였는데, 이후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전임 교원도 맡을 수 있도록 권장하였다.

이 교과목은 당시 신설된 것이라, 공통적 메뉴얼과 수업의 통일성을 위해 교수자들의 사전 워크숍과 토론 등이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이 교과목 개설을 위해 거의 1년 동안 수많은 사전 워크숍과 토론을 진행했고 수업의 균질에 대비했다. 여기서는 우선 어떤 작품을 읽혀야 하며, 또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각 분반별로 수업의 운영 단계가 통일되고 있는가도 중요했다. 각 단계별로는 강독, 토론, 서평의 역할로 나뉘었는데, 강독은 읽기를 독려하여 활용하고, ‘토론’은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 토론은 쟁점을 확인하고 이것을 텍스트에 적용하며 논의하도록 하였다. 발표는 조별로 하는 것을 권장하여 논의된 내용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였다.

한편 ‘서평’은 고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 개개인에게 서평을 작성하게 하였다. 서평 작성은, 내용을 분석 비판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글로 조직화하는 것이다. 서평은 퀴즈, 강독, 발표, 토론에서 발견되고 제기된 문제와 그 해결 과정을 자신의 것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서평에서 유의할 점은, 감상문과 서평의 형식을 구분하며, 서평의 주제, 분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인데, 토론 후 수업 시간에 해당 과제를 작성하도록 지도하며 우수한 서평은 발표 후 추가 토론의 주제

로 활용가능하다.

퀴즈 및 강독은 발표, 토론에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고전을 읽어 나가기 위한 이해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토론과 발표’는 소통과정에서 수단일 뿐이며, 유연한 사고로의 접근을 위해서는 다양한 읽기가 목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전 읽기를 중심에 둔 말하기, 글쓰기 모형이 중요한 것이다.

학생들의 읽기를 유도하기 위해 퀴즈도 유용하다. 이는 선행읽기를 확인하는 과정뿐 아니라 Q&A 등을 가지게 하며 학생들의 관점에서 수용공간을 넓히도록 하기 때문이다.

평가는 시험 위주이며, 이 시험은 고전의 종합적 이해 및 사유의 노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정리하게 한다. 유형은 서술형과 각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것 등이 있다. 평가의 방향은, 고전에 담긴 혜안을 통해 통찰한 시대적 과제에 창의적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결국 이 수업은 고전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종합적 사고력을 겸비한 통섭적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 고전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와 수용을 겸비하려는데 목표를 두었다.²⁶⁾

VI. 결 론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고전 읽기와 교양교육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은 고전(카논)의 개념과 대학교육에서의 고전 읽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또한 어떤 고전을 읽힐 것인가, 즉 카논 선정의 문제점과 선정 시 유의할 점을 살펴보았다. 정전 선정은 오늘날 정책뿐 아니라 시장, 오락 및 유희 경향 등과 맞물려 있어, 어떠한 기준점을 고려해야 하는

26) 수업모형에 대해서는, 정인모·허남영, 「고전읽기를 활용한 수업모형」, 『교양교육연구』 Vol. 7, No. 1, 2013 참고 바람.

가를 알아보았다. 이 문제에 있어 켈페르트는 소위 ‘좋은 책’을 결정하는 미학적 가치 기준으로 1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²⁷⁾

그다음으로는 어떻게 고전을 읽을 것인가, 즉 고전 읽기 방법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해 비판적 글 읽기가 강조되어야 함을 기술하였다. 특히 능동적이며 통합적 인간상이 요구되는 오늘날 올바른 비판적 글 읽기가 요구되는데, 단순히 글을 읽을 때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차원을 넘어, 텍스트가 가진 무궁한 의미를 재해석하고 의미를 창출하는 차원으로써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전을 통해 고전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고전의 의미가 경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대안으로 통합적 읽기와 토론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메스미디어와 전자 기기가 대세를 이루는 지금, 그래도 책 읽기는 계속되며 여전히 학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전은 앞서 살펴본 대로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바, 고전 읽기 교육에 대한 인식이 더욱 깊어져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다양한 실행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미래의 바람직한 인간상, 즉 적극적, 주도적, 통합적 인간상은 고전 읽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7) 즉 그것은 완결성(Vollkommenheit), 분위기(Stimmigkeit), 표현력(Expressivität), 현실성(Welthaltigkeit), 보편성(Allgemeingültigkeit), 흥미(Interessantheit), 독창성(Originalität), 복잡성(Komplexität), 애매모호함(Ambiguität), 신빙성(Authentizität), 저항성(Widerständigkeit), 경계 넘음(Grenzüberschreitung), 확실한 어떤 것(Das gewisse Etwas)이다. Gelfert · Hans-Dieter, *Was ist gute Literatur?*, C. H. Beck, 2004, pp. 53-77 참조.

참고문헌

- 교수신문(엮음), 『최고의 고전번역을 찾아서(1, 2)』, 생각의나무, 2007.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센터, 『고전의 힘』, 꿈결, 2013.
- 서강대학교 교양인성교육위원회, 『아무도 읽지 않는 책』, 서강대학교출판부, 2007.
- 윌레 소잉카, 「문학의 서쪽을 향한 정전, 동쪽을 향한 정전」, in: 『경계를 넘어 글쓰기』, 장경렬 역, 민음사, 2003.
- 손향숙, 「해리포터는 아동 문학의 고전으로 남을 것인가」, 『창작과 비평』 2005년 겨울호, 창비, 2005.
- 정인모, 「카논과 독서교육」, 『독어교육』 36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06.
- 정인모, 「교양교육과 고전 읽기」, 『독어교육』 39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07.
- 정인모, 「정전화와 탈정전화」, 『독어교육』 43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08.
- 정인모, 「바람직한 교양교육 기관의 요건과 유형」, 『교양교육연구』 Vol. 10, No. 3, 한국교양교육학회, 2016.
- 정인모 · 허남영, 「고전읽기를 활용한 수업모형」, 『교양교육연구』 Vol. 7, No. 1,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
- 정인모 · 허남영, 「〈고전읽기와 토론〉 강좌에서의 읽기모형 개선방안」, 『교양교육연구』 Vol. 8, No. 6,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 조창섭 외, 『독일현대문학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최훈, 「김영정 교수의 비판적 사고론」, 『논리연구』 Vol. 13, No. 2, 한국논리학회, 2010.
- Becker, S., Hummel, C., & Sander, G., *Literaturwissenschaft*, Reclam, 2018.

- Bloom, H., *The Western Canon*, Riverhead Books, 1994.
- Edmundson, M., *Why read?*, Bloomsbury, 2004.
- Eggert, H., & Garbe, C., *Literarische Sozialisation*(2. Aufl.), J. B. Metzler, 2003.
- Gelfert, Hans-Dieter, *Was ist gute Literatur?*, C. H. Beck, 2004.
- Gösweiner, F., *Einsamkeit in der jungen deutschsprachigen Literatur der Gegenwart*, StudienVerlag, 2010.
- Karolides, Nicholas J., Bald, M., & Sova, Dawn B., *100 Banned Books*, Facts On File Inc., 1999.
- Kermode, F., *Pleasure and Change*,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04.
- K. Pfaefgen, E., *Einführung in die Literaturdidaktik*, J. B. Metzler, 1999.
- Lange, H., *Weltliteratur für Eilige*, Droemer, 2009.
- Maier, K., *Die berühmtesten Dichter und Schriftsteller Europas*, Marix Verlag, 2007.
- Reich-Ranicki, M., *Der Kanon, 20 Romane und ihre Autoren*, Insel Verlag, 2002.
- Thiele, J., *Die großen deutschen Dichter und Schriftsteller*, Marix Verlag, 2006.
- Vogt, J., *Einladung zur Literaturwissenschaft*(2. Aufl.), UTB, 2001.
- Wilpert, G. von., *Sachwörterbuch der Literatur*(der 8. Aufl.), Alfred Kröner Verlag, 2001.
- <http://www.derkanon.de/essays>(Marcel Reich-Ranicki, “Brauchen wir einen neuen Kanon?”)

Abstract

Reading the Classics and the General Education

Jeong, Inmo(Pusan University)

This paper seek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reading the classics and general education.

First, this paper seeks to identify the concept of general education;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seeks to identify how much the concept of Freiheit(freedom) and Einsamkeit(solitude) - the fundamental concepts of colleges suggested by the German philosopher Wilhelm von Humboldt - concurred with the ideologies of general education.

Then, the concepts of the classics and the history of the canonical books are described, with the meaning of classics, selection criteria, and the values of canonical books in the post-modern era examined.

Then the question is: what classics should be read? And how should they be read? The former question deals whether the readers of the classics should focus on the books that intrigue them, or “good books”, or sophisticated works of literature with literary value. In case of the latter, critical reading is important. In this context, critical reading refers to reading for the sake of nurturing critical thinking rather than reading works of writing critically.

Furthermore, this paper briefly describes the actual case of classes reading the classics with the example of college courses reading classics and debating.

Anyhow, the importance of reading the classics - the core part of general education - cannot be overemphasized and requires the best teaching method and strategies according to each situation flexibly.

[Key Words] Liberal Education, Classic, Canon, The Critic Reading,
The Aesthetic of Reception

접 수 일 : 2020년 07월 20일
심사완료 : 2020년 09월 14일
게재결정 : 2020년 09월 14일